

찬란한 여름

박소영

멘토 전호성

등장인물

찬란 18세. 조용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남학생
민애 18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학생
정혜 18세. 민애의 단짝 친구
여자1 40대. 어릴 적 헤어진 찬란의 엄마
여자2 40대. 어릴 적 헤어진 민애의 엄마
남자 50대. 민애가 살고 있는 보육원의 관리교사
선생님 40대. 학교 선생님

시간 2019년 겨울~2020년 여름
장소 학교 교실, 거리, 주점, 보육원 정문
무대 각 장소/사간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전환이 용이하게

1장

늦은 오후. 교실 안.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애. 그 옆자리 정혜.

정혜 (외치듯) 뭐? 학급비가 없어졌다고?
민애 췌- 목소리 좀 낮춰. 그냥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
정혜 그거나 그거나. 어쨌든! 제대로 찾아본 거야?
민애 어, 없어.
정혜 누가 점심시간에 가져간 거 아냐?

민애 아, 아니야. 내가 어디서 잃어버린 거겠지…

정혜 가만있어봐. (주변과 관객들을 둘러보며 한 손을 든 채) 야, 혹시 오늘 점심 안 먹고 교실에 있었던 사람? (사이) 없어? (사이) 민애야, 재. 재는 항상 점심 안 먹잖아.

민애 누구? 아, 한찬란? 아침부터 계속 자던데… 그냥 내가 다시 찾아볼게.

정혜 있어봐. (사이) 야, 한찬란. 일어나 봐. 너 점심시간에 교실에 계속 있었냐?

찬란 (자다가 일어나 잠긴 목소리로) …그런데?

정혜 누가 우리 반에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찬란 몰라… 계속 자느라 못 봤는데…

정혜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민애 그만해, 정혜야…

정혜 아, 가만 좀 있어봐. 계속 교실에 있었다잖아.

민애 누가 훔친 거 아닐 거야. 그만해, 정혜야.

정혜 야, 한찬란. 니 가방 좀 봐도 되냐?

민애 야, 너 왜 그래?

정혜 아니, 애가 범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건데, 뭐. (찬란에게) 가방 봐도 되지?

찬란 (한숨. 가방을 건네며) 맘대로 해.

정혜, 찬란의 가방을 뒤집어 흔들며 안에 든 물건들을 쏟아낸다.
꼬깃꼬깃 구겨진 천원짜리 몇 장과 담배 한 갑 뿐인 가방.

정혜 이상하다. 없네… 야, 너, 다른 가방 있는 건 아니
고? 아니다, 주머니에 든 것도 좀 꺼내봐봐.

민애 정혜 너, 나랑 얘기 좀 해.

화가 난 듯 거칠게 정혜를 잡아 끌며 교실 뒤로 향하는 민애.

찬란은 가방을 정리해 다시 책상위에 얹드린다.

민애 너, 재한테 왜 그래? 왜 무작정 의심하는 거냐고.

정혜 의심 갈 만한 애니까 그렇지.

민애 그게 무슨 소리야.

정혜 재, 유명해. 나랑 같은 중학교였거든. 2학년때였
나? 반 애들 지우개며 볼펜이며 별 희안한 게 재
가방에서 나온 거야. 그때 학교가 완전 발칵 뒤집
혔었거든.

그 일로 재 아빠가 학교에 술이 떡이 되어 와서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애를 엄청 두들겨패더라고.
대충 느낌 오지?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야.
(속삭이듯) 재 엄마도 가정폭력때매 집 나간 거래.

정혜의 말에 찬란을 안쓰럽게 돌아보는 민애.

민애 그때도 저렇게 조용했어?

정혜 딱히? 아, 그때도 점심 안 먹고 맨날 자고 그랬는
데. 근데, 조용한 편은 아니었어. 돌발행동을 간간
이 했거든.

민애 돌발행동? 어떤…

정혜 뭐랄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던가, 그 대로 밖으로 뛰쳐나가버린다던가… 그냥 좀 이상했어.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그런 느낌? 어쨌든, 재가 훔친 게 맞을 거야. 재 아님 누구겠어? 그리고, 요새 누가 자꾸 뒤뜰에서 담배 피우나 했더니… 으~ 싫다. 줄라 싫어. 극혐.

치를 떨 듯 몸을 떨며 교실 밖을 나서려는 정혜.

민애 어디 가? 곧 수업 시작인데.

정혜 손 씻으러. 재 가방 만졌잖아. 짜증나.

교실 문을 나서는 정혜와 옆드려 있는 찬란을 번갈아 보며 한숨 짓는 민애. 마음이 복잡하다.

안전.

2장

같은 날 하룻길. 동네 골목길.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찬란, 손에 천 우산을 바닥에 질질 끌며 비를 맞은 채 걷는다.

그 뒤를 조심스럽게 쫓는 민애.

동네 슈퍼 앞에 다다른 찬란, 파라솔 아래에 담배를 꺼내 문다.

뭔가 결심한 듯 찬란의 앞으로 나서는 민애.

민애 뒤뜰에서 담배 피우는 게 너구나?

누군데 말을 거냐는 듯 민애를 뚱하게 바라보는 찬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일어서려 한다.

민애 설마, 나 몰라? 나 반장인데. 아, 아까전에 그…
찬란 아… 그 쫘알거리는 애 옆에 있던…
민애 응? 아~ 정혜? (웃음) 쫘알거리는 애래…

민애, 우산을 접고 파라솔 아래 찬란의 옆자리에 앉는다.
뺏뺏하게 앉아있는 찬란을 엉덩이로 밀어내자 어색하게 자리를
내어주는 찬란.

민애 너, 여기 살아? 천비 마을?
찬란 어.
민애 나도 여기 살았었는데. 보육원이 신도시로 옮겨지
기 전에.
찬란 보육원?
민애 아, 몰라? 나 보육원에 사는데.
찬란 어, 그렇구나…
민애 그게 다야? 나 보육원 산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리액션 장난 아닌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묻기 전엔
잘 말 안하는데.
찬란 어,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민애 어쩐지, 너한테는 말해도 될 거 같아서.
찬란 왜?

민애 글썸… 니가 좀, 아니, 많이 궁금하달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냥, 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찬란, 민애를 잠시 바라본다.

찬란의 시선을 느낀 민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민애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니 얘기 좀 들었거든.
아버지 이야기랑, 어머니 이야기랑…

찬란 (표정 굳으며) 그래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민애 물론, 상관없는 이야기지. 근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왜 신경이 쓰이는 걸까, 생각해봤는데, 음… 동질감?

찬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민애 난 엄마 얼굴도 모르거든. 어딘가에 부모님이 있긴 하겠지만, 애초부터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부모님 이야기에 잠시 예민해졌던 찬란, 이어지는 민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짝 누그러든다.

민애 (살짝 웃어보이며) 어때? 이정도면 찌꺼기는 닮은 건가?

빗소리 점점 굵어진다. 잠시 말없이, 민애는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찬란은 그런 민애를 바라본다.

민애 오늘 학급비 일 말이야...

찬란 내가 훔쳤냐고?

민애 (황급히) 아니, 니가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잃어버린 거지. (사이) 혹여, 누가 훔쳐갔다고 해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찬란 너도 봤으니까 알 거 아냐. 그 시끄러운 애도 나를 의심하는 거.

민애 왜 니가 훔친 게 아니라고 말 안 했어?
제대로 설명이라도 했으면 의심도 안 받고, 가방도 안 뒤졌을 거 아냐.

찬란 과연? 너, 낙인이라는 거 알지?
한 번 찍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 없어. 이미 낙인 찍혔으니까.

민애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찬란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거 아냐. 애들이 내 가방 안에 넣어놓고는 누명 씌운 거지. 근데 소용 없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건 구차한 변명이 될 뿐 이니까.

민애 그럴수록 이야길 해야지.

찬란 그만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민애 그게 무슨 소용이냐니

찬란 아, 그만하라고.

민애 (지지 않고 톤을 높여서) 낙인자? 구차한 변명?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찬란 니가 뭘 알아? 학교에서 뭐가 없어지기만 하면 항상, 그리고 당연히 의심을 받았어.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사이) 지켜워지고 허무해진 것 뿐이야.

찬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 나간다.
미처 챙겨가지 못 한 우산이 파라솔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다.
민애, 그 우산을 찬란을 향해 힘껏 던진다.
우산에 맞은 찬란, 그 자리에 멈춰선다.

민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잖아, 안그래?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잖아, 안그래?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안그래?
대답해 봐, 대답해 보란 말야!!

빗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찬란.
민애, 찬란에게 하는 듯 또 스스로에게 하는 듯 되뇌인다.

민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대답 좀 해 줘. 그 말이 맞다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다고.
(사이) 난 니가 참 궁금했는데, 나랑 비슷할 거 같아서 궁금했는데… 이젠 알고싶지 않아졌어.

민애, 찬란을 지나쳐 뛰어간다.

찬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우산을 주워들어 펼쳐본다.

망가진 찬란의 우산. 이내, 파라솔 아래 민애의 우산을 발견한다.

돌아보지만, 민애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암전.

3장

다음 날. 학교. 쉬는 시간.

찬란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다.

그를 바라보는 민애의 옆에 앉는 정혜.

정혜 학급비는 찾았어? 찾아볼거라고 하더니.

민애 못 찾았어.

정혜 애초부터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니까? 백퍼 재가 가져간 거야.

민애 내가 메꾸면 돼. 그만해.

정혜 아니, 범인이 코 앞에 있는데...

민애 (말을 자르며) 그냥, 단순히 내가 잃어버린 거야.
누군가 훔쳤다는 증거도 없잖아.

정혜가 찬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선생님 등장.

선생님 야야!! 곧 종치는데 다들 수업 준비 안 해?!

한찬란! 잠시 교무실로 와.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엎드려 있던 찬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나선다.

정혜 대박... 안 자고 우리 얘기 다 들은 거야?
가만, 쌤도 아신 건가? 학급비 없어진 거. 누가 말했지? 뭐, 누군지는 몰라도, 나이쓰! 재가 훔치는 거 누군가 봤나 보네.

민애, 뭔가 불안한 표정과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잠시 후 교실로 돌아온 찬란, 늘 그랬듯이 책상에 엎드리려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 보며 생각에 잠긴다.

안전.

4장

같은 날. 하룻길. 동네 골목길.

민애, 어제 두고 온 우산을 찾아 파라솔 주변을 살핀다.

잠시 후 민애에게 다가와 우산을 건네는 찬란.

찬란 이거 찾는 거야?

민애 아... 고마워. (사이) 저, 나... 나는 먼저 가볼게.

찬란 (황급히) 어제... 니가 한 말 생각해 봤어.

민애 응?

찬란 미안해.

민애, 찬란을 바라본다. 찬란, 준비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찬란 노력해보라고 했었지. 근데, 그렇더라. 별로 노력해 본 기억이 없더라. 그냥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더라.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나를 버린 엄마 탓이고, 나쁜 아빠 탓이고... 그런 환경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맘이 편하니까.

민애 환경 때문이다...

찬란 물론, 상관없진 않겠지만. 근데, 어제 니가 한 말, 노력... 그래, 결정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나잖아.

민애 찬란아...

찬란 어제 니가... 이제는 날 알고싶지 않다고 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궁금해졌어. 니가, 그리고 니가 느꼈다는 동질감. (사이) 그래서 말인데... (사이) 내가 노력을 좀 해봐도 될까?

민애 (살짝 당황) 어... 너도 이런 기분이었어? 뭔가 엄청 부끄럽네...

찬란,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애에게 쪽지를 하나 내보인다.

민애 뭐야, 이거?

찬란 선생님이 주신 건데...

민애 선생님이?

찬란 엄마가 있는 주소래.

민애 어디 봐봐. 말도 안 돼. 가까운 곳에 계셨네?
버스 타면 한 20분이면 될 텐데…
(찬란의 표정을 살핀다.) 야,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찬란 그냥… 내가 여기에 가도 될까? 그래도 될까?

민애 왜 그런 생각을 해?

찬란 어쨌건 날 버린 사람이잖아. 당연히 자길 찾아온다면… 피하고 싶지 않을까, 싶고…

민애 뭐,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찬란 그렇지? 안 가는 게 맞겠지?

민애 그래도 난, 니가 여기에 꼭 찾아갔으면 좋겠어.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뭇 때문에,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널 버리고 떠났는지, 왜 그랬는지 화내면서 따지길래도 해야지.
그리고, 너도 내심… 엄마… 만나고 싶잖아, 안그래?

찬란 잘 모르겠어.

민애 그럼 된 거네. 만나기 싫은 건 아니니까.

찬란 노력.

민애 응? 뭐라고?

찬란 이런 것도 노력이겠지? 망설여지지만 해보는 거.

민애 그래, 맞아. 노력. 같이… 가 줄까?

찬란 같…이?

민애 응, 같이.

찬란 고마워.

민애 고맙긴. 저기…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노력 중이야.

찬란 뭔데?

민애 나중예. 너, 엄마 만나고 와서.

찬란 그래.

갑자기, 뭔가 어색한 두 사람.

찬란 그럼… 갈까?

민애 응? 어딜?

찬란 집에 가야지.

민애 아, 집. 가야지.

찬란 그럼…

민애 어, 그래…

뭔가 우물쭈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안전.

5장

같은 날. 저녁. 보육원 앞.

찬란과 헤어진 민애, 보육원 앞 우편함을 살피고 있다.

민애를 발견한 보육원 관리교사 다가온다.

남자 너 또 여기 있냐?

민애 아, 쌤.

남자 편지 오면 내가 알려준대도.

민애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남자 (사이) 입지?

민애 네?

남자 니 부모들 말이야.

민애 사실, 전혀 입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싶고… 어리광 같긴 하지만…

남자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 그게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

민애 그렇겠죠?

남자 그럼. 자, 이제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자.

민애 저, 쌤…

남자 응? 왜, 더 할 말이라도 있니?

민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쌤이 그러셨잖아요.
착한 아이가 되면 부모님이 꼭 저를 찾아와 주실 거라고.

남자 그랬었지.

민애 저 노력했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근데, 이상하죠?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모순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남자 의도가 항상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
때론 노력하려는 마음이 너무 과하면 장작 내 맘과는 다른, 거짓이 되기도 하더구나.

민애 어려워요.

남자 넌 가끔… 너 자신에게 너무 혹독한 경향이 있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단다. 누구나 실수는 해. 당연
한 거야.

(사이) 자, 얼른 얘기해 봐. 더 할 말이 있는 거
지?

민애 (한숨)

남자 자자, 너무 늦었다. 또 원장 선생님한테 혼날라.
그만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지?

민애 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암전.

6장

며칠 뒤 늦은 저녁. 어두운 골목길.

쪽지에 쓰인 주소를 따라 어느 허름한 주점 앞에 다다른 찬란과
민애.

확신이 없는 듯한 찬란의 등을 떠미는 민애.

민애 잘 다녀와. 여기서 기다릴께.

멋쩍게 웃어 보이며 문 안쪽으로 들어서는 찬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내실에서 나오는 여자. 찬란의 엄마.

여자1 어서 오세… 어머, 학생은 안 받는데…

찬란 어, 저… 그게…

여자1 중3? 고1? 가게 잘못 들어온 거니?
찬란 중2고요… 가게 제대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여자1 애 좀 봐. 그래, 술 마시러 온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성년자한테는 술 안
 팔아. 잘 가.
찬란 저, 찬란이에요.

여자, 그 소리에 찬란을 다시 살펴본다.

여자1 찬란이… 내가 아는 그 찬란이… 내 아…들?
찬란 네.

같은 시각, 주점 밖에선 민애가 골목 모퉁이에 앉아, 어제 보육
원 관리교사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남자 그런 일일수록 이야길 해야 돼.
민애 화 많이 내겠죠? 저에게 실망하고…
 전 나쁜 아이가 될 거예요.
 그 애가 말한 낙인… 나쁜 아이로 낙인 찍히겠죠?
남자 그래서 이야길 안 한다면, 넌 좋은 아이로 남을 순
 있겠지만, 결국 그게 널 나쁜 아이로 만들고 말 거
 야. 그 누구보다 니가 더 잘 알잖니?
민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전…

남자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나는 잘 아니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했지? 완벽한 건 세상에 없다고.
누구나 실수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 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수’ 로 그칠 수 있게, 더 늦지 않게 꼭 애길 하렴. 알겠지?

머리를 싸매는 민애.
같은 시각, 마주앉은 찬란과 여자.
여자, 찬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여자1 찬란아, 엄마랑… 같이 살까?

찬란, 자신의 손에 올려진 여자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본다.
이내,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빼낸다.

찬란 그제… 만나보고 싶기는 했지만…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해 본 적 없어요.
어… 오늘 처음 보기도 했고… 아직은 좀 많이 낯설고…
(양금이 살짝 있는 듯한) 무엇보다, 엄마라는 거, 있었던 적도 없었고…

여자1 그렇…지? 십 수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이 엄마라는 게… 그래, 이상하지. 내가 너무 선불렀던 것 같네. 미안하…

찬란 (말을 끊으며) 그래서, 어... 가끔은 여기 찾아와도 될까요?

여자1 여기로? 여긴 좀... 엄마가 찬란이 집으로 가도 되는데... 아, 엄마가 좀 부끄럽지? 이런 모습이라...

찬란 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몰라서요. 안 마주치고 싶으실까봐...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올게요. 그래도 되죠? (어렵게) 엄... 마...

여자, 천천히 찬란을 끌어안는다.

두 사람 잠시 말없이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다.

암전.

밖에선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찬란을 기다리고 있는 민애.

잠시 후 주점 문을 나서는 찬란에게 민애가 다가간다.

민애 어디 보자... 울지는 않은 것 같네? 잘 만났어? 애기 많이 나눴고?

찬란 어... 뭐... 그냥...

머뭇머뭇하던 찬란, 자칫 울음이 터질 기세다.

이를 눈치챈 민애, 말 없이 찬란을 안아준다.

OST(1) - DreamBound(문재영)

밤이 오고 잠이 들고

니가 나타나면 그게 내 아침이야

무슨 일 있었냐 듯 날 안아주지

아픔이 무더질만큼 황홀해-

손을 꼭 잡고 우린 / 바다를 걷고 우린
잔 물결과 인사 나누지
하늘을 날고 우린 / 이 구름 속에서 우린
서로에게 완벽히 녹아들어-

두 사람 잠시 말없이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다.

밤이 깊어간다.

안전.

7장

다음 날. 골목길.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민애는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찬란을 기다리고 있다.

저만치서 걸어오는 찬란.

민애 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찬란 어, 미안.

민애 어? 신발 새로 샀어?

찬란 어? 어... 그분...이 사주셨어. 신발 다 낡았다고.
어색하네... 신발이 내 발에 딱 맞는 게. 늘 작았었는데...

민애 좋네. 예뻐.

찬란 응?

민애 아, 아니... 신발 말이야, 신발.

찬란 (사이) 궁금한 게 있는데...

민애 궁금한 거?

찬란 넌 늘... 다정한 거 같아서.
민애 내가?
찬란 응.
민애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보여?
찬란 그냥, 잘 챙겨주잖아. 말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민애 얼굴은?
찬란 (당황) 어...
민애 (말 돌리며) 뭐 그냥, 어릴 땐 단순히, 착하게 살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 했었고. 근데 뭐, 뜻대로 잘 안 돼. 엉뚱한 결과가 되기도 하고, 정 반대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찬란 아직도, 부모님...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해?
민애 글썄... 뭐 여차 하면 내가 찾아가도 되는 거고.
찬란 그렇게 만나고 싶어? 부모님이?
민애 뭘 물어. 당연한 걸.
찬란 겁 안 나?
민애 왜 겁이 나?
찬란 혹시 모르잖아. 부모님이 널...
민애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사이) 찢든! 너도 엄마가 널 버리고 도망간 거였다고 생각했잖아. 그치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 안그래?
 그니까, 나는... 나도... 좋게 생각할래. 그럴래.

찬란 (사이) 아, 근데,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민애 어? 아, 아니... 그게... 아니야. 별 말 아니야.
찬란 별 말 아니야?
민애 어, 아니야.
찬란 그래, 그럼. 이만... 갈까?
민애 어, 그래. 그럴까?

두 사람, 또 뭔가 어색하게 우물쭈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
우산을 펼치는 민애. 그런 민애를 바라보는 찬란.

민애 우산 안 펴? 또 비 맞고 가려고?
찬란 비를 왜 맞아, 맞긴...

불쑥, 민애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찬란.

찬란 넓네.
민애 이게 넓다고?
찬란 이정도면 뭐...
민애 아, 좁아. 니 우산 써.
찬란 그냥... 같이 쓰고 가면 안 돼?

우물쭈물 하는 민애를 이끌고 걸음을 옮기는 찬란.
비에 옷깃이 젖을새라 바짝 붙어서는 두 사람.
암전.

8장

다음 날 오전. 학교.

교실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통과 그 곁에 선 정혜.

잠시 후 찬란, 교실로 들어선다.

정혜 야, 한찬란.

찬란을 불러세운 정혜, 쓰레기통을 바닥에 엮는다.

쏟아진 쓰레기 더미에서 흰 봉투 하나를 집어 든다.

정혜 야, 이게 뭐일 거 같냐?

찬란 뭔데, 그게?

정혜 어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학급비 봉투잖아. 민애가 없어졌다고 했던!

찬란 아, 그래? 찾았어?

정혜 그래, 찾았지. 빈 봉투만. 어떻게 생각해?

찬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정혜 너 신발. 늘 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더니.

학급비로 산 거야? 그런 거 치곤 소박한 거 샀다?

찬란 아직 그 얘기야?

정혜 당연하지. 니가 어떤 앤지 아는데.

중학교 때 있던 도박이 몇 년 지났다고 없어져?

찬란 증거 없잖아. 내가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고, 봉투를 버렸다는 증거.

정혜 어? 가만... 나는 지금 니 행동이 더 수상해.
의심을 받든 말든 아무런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며 해명하는 거, 진짜 이상하거든?

찬란 아니라고 말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너 같은 애들은.

정혜 뭐?

찬란 내가 아니라고 해봤자, 끝까지 날 의심했을 거 아니냐고.

민애 너희 둘 거기서 뭐 해?

정혜 이거 봐봐. 니가 잃어버린 학급비. 이 봉투 맞지? 우리 반 쓰레기통에 버젓이 버려져 있더라.

민애 봉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일단,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정혜야.

정혜 재를 왜 감싸?

민애 감싸는 게 아니라, 증거도 없이 무작정 의심하는 건...

정혜 너도 증거 타령이야? 반에서 학급비가 없어졌고, 반에서 의심갈 만한 사람은 딱 한명이야.

민애 내가 잃어버린 거라니까.

정혜 자꾸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는데, 너처럼 꼼꼼한 애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재 감싸주려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
야, 한찬란. 이제 그만 인정해. 니가 훔쳤다는 거.

찬란 난 훔치지 않았어.

정혜 그래 좋아. 그럼 뭐 cctv를 돌려보든 뭘 하든 담임
한테 말할래. 반에 도둑고양이가 하나 숨어든 것
같은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야, 한찬란. 나는 니가 자수할 기횡 쫓고, 그걸 건
어찬 건 너야.

찬란 내가 훔치지 않았어. 나 아니라고.

정혜 너 아니면 대체 누구겠냐 말아야, 내 말이.

찬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정혜 그러니까 밝혀 보자고, 누가 범인인지, 누가 훔
쳤...

민애 나야.

정혜 응?

찬란 뭐?

민애 내가 훔쳤어.

정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애 학급비... 사실은 내가 썼어. 없어졌다고 거짓말 한
거야.

정혜 야, 또 재 감싸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딴 장난 치
지 마.

민애 감싸주는 것도, 장난도 전부 아니야. 진짜야. 내가
훔친 거 맞아.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야. 전부.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메꾸려고 했는데...

정혜 진짜야? 니가 훔쳤다고? 아니, 썼다고?

민애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금방 채워 넣으려고 했는
데... 그 땐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
말을... 미안해.

정혜 하...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걸 어디다가... 아니,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민애 절반 정도는 모았거든. 나머지도 금방... 미안해, 정혜야.
찬란아, 너한테는 정말 더더욱 미안해...

찬란, 아무 말도 않는다.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민애를 보고만 있다.

민애 이 일은 내가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처벌도 받을게. 요 며칠동안 반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학급비도 빠르게 메꿀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애, 빠른 걸음으로 교실에서 나간다. 적막이 가득한 교실.
정혜, 난처한 표정으로 찬란을 숙 쳐다보고는 민애를 뒤따른다.
찬란, 교실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정리한다.
암전.

9장

그 날 오후. 하룻길.

늘 들르던 동네 슈퍼의 파라솔 아래 민애, 멍하니 앉아있다.

민애를 찾아 헤매던 찬란, 민애를 발견하곤 다가간다.

찬란 거기서 뭐 해?

민애 어? 어, 그냥... 이제 여기가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치기도 아쉽고... 비도 오고 그래서...
찬란 우산... 없어?
민애 (망가진 우산을 들어보이며)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망가졌어. 있다가, 비... 그치면... 가려고.
찬란 (앉으며) 웃차... 나도 비 그치면 가야겠다.

두 사람, 잠시 말 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본다.

찬란 듣기만 해. 일단, 놀랬다. 니가 그랬을 거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 넌 그럴 애가 아니니까.
민애 미안... 나한테 많이 화났지?
찬란 뭐 좀 당황스럽고 화도 나긴 했었는데, 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니가 싫어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싶고. 니가 그 돈을 허투루 썼을 애도 아니고.
민애 찬란아...
찬란 진짜 신기하다.
민애 뭐가?
찬란 이렇게 니 얼굴 보니까, 화가 났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네.
(사이) 돈은, 어느 정도 메꿨어?
민애 대충 절반...

찬란 오케이. 빨리 해결하자.
야, 일어나.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거 같은데. 나도 뭐 알바 좀 알아볼까?

민애 미안해... 너만 억울하게... 그래놓곤 뻔뻔하게 노력을 해보라니 뭐니... 미안해, 정말 미안...

찬란 괜찮아. 그래도 그 덕분에 엄마도 만나러 갈 수 있었고, 나도 좀 달라진 거 같고...

민애 엄마는 내가 아니었더라도...

찬란 아니, 니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 엄마를 만나러 갈 생각조차 안 했을 거야. 선생님이 애써 알아보고 챙겨주신 그 쪽지는 곧바로 버렸을 거고.
민애야. 덕분에 ‘노력’이라는 좋은 단어가 내 것이 되었잖아.
야, 나한테 포기하지 말라던 니가 이러고 있음 어떡하냐.
일어나, 남은 돈 얼른 메꿔야지.

민애 고마워. (사이) 근데, 비... 아직 안 그쳤는데...

찬란 (웃으며) 내 우산 같이 쓰고 가면 되지.

찬란, 우산을 펼치고 민애를 향해 활짝 웃어 보인다.
민애, 역시 활짝 웃으며 우산 아래 찬란의 품으로 들어간다.
안전.

10장

그 날 저녁. 보육원 앞.

민애를 바라다주는 찬란.

두 사람, 보육원 앞을 서성이는 정혜와 마주친다.

민애 어, 정혜야.

정혜 어딜 쏘다니다 이제야 오는 거야?

(찬란에게) 때마침 같이 있었네. 야, 한찬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막무가내로 범인으로 몰아간 점, 사과할게.

찬란 어, 뭐, 그래...

정혜 니가 많이 억울했을텐...

찬란 (말을 자르며) 아니, 뭐... 옛날 일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앞으론...

정혜 (말을 자르며) 그래, 앞으론 조심할게.

찬란 어, 그래... 고마워.

정혜 그리고, 야, 김민애, 이 기집애야.

민애 미안해, 정혜야. 너 바보 만들고...

정혜 (한숨) 됐고. 급한 일 있었던 거야? 잘 해결은 된 거고?

민애 응?

정혜 아, 그 돈 말이야. 갑자기 그 큰 돈을...

민애 정혜야, 그게...

정혜 망할년. 아, 돈 필요하면 나한테라도 미리 얘길 하든가. 자, 이거.

민애 이게 뭐야?

정혜 다음 달 알바비 가불로 땡겨 받은 거야. 일단 이걸로 메꿔.

민애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혜 어느 세월에. 시끄럽고, 일단 메꾸고 나한테 갚아. 각오해. 이자 싸게 받을 거니까.

민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혜야.

정혜 지랄. (사이) 근데, 너희 둘, 사귀냐?

민애 아, 아니!

정혜 넌 왜 대답 안 해?

찬란 어, 모, 몰라...

정혜 미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몰라는 뭐야, 몰라가... 야, 할거면 똑바로 해, 알았어?

민애 야, 왜그래...

찬란 그래, 노오력!

세 사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문다.
암전.

11장

1년 후 어느 늦은 오후. 보육원 앞.
살짝 가랑비가 흩뿌린다.
모처럼 주말 데이트를 위해 민애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
한 여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찬란을 지나쳐 우편함 앞에 선다.
우편함을 바라보다 이내 편지 하나를 넣고 돌아선다.

찬란 저기, 우산 없으세요? 옷이 많이 젖으셨는데...

여자, 찬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인다.

찬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여자에게 건넨다.

찬란 이거 쓰세요.

여자, 당황한 듯 거절의 손짓을 한다. 언뜻 보니 수화인 듯 하다.

찬란, 애써 여자의 손에 우산을 쥐어준다.

찬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화를 몰라서...

여자가 수화로 무어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간다.

찬란, 알아듣진 못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찬란 (입모양 크게)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곧 여자친구 나올 거라서요.

여자, 찬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선다.

찬란, 멀어져가는 여자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찬란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민애 야! 한찬란! 이 미친놈아, 우산도 없이 여기서 뭐
해. 들어와서 기다리던가!

찬란, 잼싸게 민애의 우산 속으로 들어간다.

민애, 찬란이 바라보던 곳에 한 여자가 걸어가는 걸 발견한다.

민애 이 시간에 누구지?
찬란 왜, 거기 뭐 있어?
민애 응? 아, 아니. 그냥.
찬란 싱겁긴.
민애 뭐 먹을까? 뭐 사줄 거야?
찬란 비 오니까... 짬뽕?
민애 미친, 흰 옷 입었는데. 오므라이스!
찬란 오므라이스?
민애 응, 오므라이스.
찬란 그래, 가자.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민애 야, 비 맞지 말고 바짝 붙어, 좀.
찬란 우산 좀 큰 거 갖고 다녀.
민애 왜애~? 작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아~?
찬란 너, 많이 변했다.
민애 왜, 싫어?
찬란 아니, 좋아!!

두 사람,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걷는다.
구름이 걷히고 비가 잦아든다.
곧 맑은 하늘 위로 해가 빛날 것 같다.

O.S.T(2) - 새벽새(문재영)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눈을 감고 기다려보면
어둠던 밤하늘은 어디 가고 금새 가벼워져,
나는 날아가.
지친 몸을 기대 뉘이고 눈을 감으면 저 멀리*

파스텔 하늘, 빛나는 보석들. 자유로워져,
나는 날아가-
순간일뿐일지라도 이대로 난 떠다닐래
잠든 네 눈에 살짝 입맞추고
별 조각 하나, 곁에 두고 올게
순간일뿐일지라도 이대로 난 떠다닐래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서
멈추지 않을 가벼운 날갯짓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fade-out)

암전.